

## 개인적인 책임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육신을 얻게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부여받았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자신의 저서인 *용서가 낳는 기적*에서 자유의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천국 회의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분의 계획을 발표하셨고, 이에 따른 조건과 이점 등을 설명하셨다. 지구는 인간이 거할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증거할 기회를 갖는 학교이며 시험의 장소이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16쪽)

자유의지와 선택에는 당연히 책임이 주어집니다. 책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구성원은 시행 중인 법령을 준수할 책임을 지며 법을 어기면 벌금을 물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심지어 사회에서 추방되는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을 배울 책임을 지며, 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학생은 유급되거나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거나 해고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 설명할 책임을 져야 하며, 언젠가 생명의 책이 펼쳐질 날이 올 때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 행한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임무 수행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임무 수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거나 행하고 있는 일 중에서 여러분 자신과 주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알기 힘든 몇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필요 이상의 수면을 취함.
2.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김.
3. 주일학교나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공과를 잘 준비하지 않음.
4. 건전치 못하며 합당치 못한 생각을 함.
5.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 이상을 사용함.
6. 어느 사람에 관해 거짓으로 증언함.
7. 도움을 주어야 할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도와 주지 않음.
8.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무시함.
9.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음.

10. 나쁜 습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11. 시간을 낭비함.
  12. 자신을 향상시키는 일을 게을리 함.
  13. 매일 영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간을 내지 않음.
  14. 성전 추천서를 가능한 한 자주 사용하지 않음.
  15.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이외에도 수많은 상황을 무한정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늦추며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변명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들이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조그마한” 것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거센 바람과 사나운 폭풍우에 견디던 숲속의 거대한 나무도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매우 조그만 벌레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큰 소망이 가짐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새로운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칠십일 회장단의 던 엘 라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더욱 온전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 만큼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발전하려면 임무 수행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지닌 사랑을 전합니다. \*

# 전화위복



도나 신 자매  
서울 선교부

지난 해 여름 한국에 큰 홍수가 났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홍수로 인해 일백 오십여 명이 사망했으며 수천 명이 집을 잃었다. 신촌은 높은 지대에 위치했으므로 우리 가족과 가옥은 무사했지만 서울을 비롯하여 한국의 거의 전지역이 물에 잠겼었으며, 안전하리라 여겨졌던 한강의 유람선은 급류에 휘말려 휩쓸려 내려가다가 반포 대교에 부딪쳐 스무 명의 의사자를 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여러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우리는 물이 빠져 나간 후 우리 지역내의 선교사들과 회원들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여행을 했다. 가는 도중, 우리는 일부 고속도로가 완전히 물에 떠내려 간 것을 보았으며, 원주에서 태백으로 향한 철교가 절반이나 파손된 것도 보았다. 철길이 홍수에 휩쓸려 엇가락처럼 구부러져서 강변에 매달려 있거나 끊어져 있는 곳도 있었고, 콘크리트 기둥이 마치 거대한 거인처럼 가로누워 있거나 깨진 채 물 속에 처박혀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우리 선교부의 운전 기사와 일부 선교사들도 집을 비우고 대피해야 했으며 많은 교회 회원들이 큰 피해를 당했다.

영월에서만도 열 명의 회원 집에 지붕까지 물이 찼으며 그 중 한 집이 떠내려가 버렸다.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이러한 재해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우리는 진흙으로 뒤덮인 거리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여기 저기서 가재 도구를 물로 닦는 것을 보았다. 길가에는 돌맹이와 쓰레기로 뒤섞여 못쓰게 된 가구들이 한 무더기씩 쌓여 있었고, 높은 지대에는 책과 이불과 옷들이 널려져 있었다. 그때 나는 마침 주한 미군 방송이 촬영하는 뉴스의 현장에 발을 들여 놓은 것 같았는데, 나 역시 사진을 자주 찍었으므로 주위 사람들은 나도 기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한 큰 피해와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노변의 모임과 성찬식은 감동적일 만큼 조용하고 영적인 모임이었다. 한 중년 신사가 나와서 우리에게 간증을 했다. 그는 딸이 선교사들을 만났을 때, 딸이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을 반대했으며, 그 후 딸이 침례받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자 거절하면서 만일 교회에 가입하면 집안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야단을 쳤다. 그러나 딸은 집을 나와 침례를 받았다.

처음에 그는 매우 화가 났으나 이전에는 딸과 매우 친밀하게 지냈으므로 딸이 집안의 안락함도 버릴 만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는 우리가 그 지역으로 여행하기 전 해에 있었던 노변의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의 가르침에 감명받게 되어 선교사와 토론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침례를 받은 후에도 왜 자신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만이 다니는 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지 의아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나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으므로 진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의 간증은 이제 누구에게 들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리나라와 빛을 발하고 있었다.

홍수가 난 지 몇 시간 이내에 선교사와 회원들이 그 형제의 집을 찾아 와서는 요청한 적도 없었는데 모두 즉시 팔을 걷고 복구 작업에 나섰다. 다른 교회에 다니며 그가 “이단” 교회에 들어갔다고 책망하고 종종 반대하던 이웃 사람들이 혼자서 외롭게 애쓰는 동안, 그 형제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려는 참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했다. 그는 미국인 자매 선교사들이 한국 여인처럼 세면기를 열심히 닦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또한 형제 자매들이 집을 청소하고 보수하고 재건하면서 보여 준 단합심과 사랑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님의 방법이 그렇듯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서 불행도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회 회원이 된 지 일 년 된 이 형제는 깨끗이 다린 푸른 색 제복을 입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은 후 자신의 간증을 들려줌으로써 우리 삶에 축복을 더해 주었다. \*

## 김포 집회소 개설

모임에 참석한 회원과 선교사들은 모두 주님의 충만한 영광과 사랑으로

큰 기쁨을 느꼈다.\*  
기사 제공 : 김일우 장로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시도된 집회소 형식의 교회 모임이 경기도 김포군 고초면에서 시작되었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선교부에서는 복음선교사 네 명을 파견하여 18일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2월 16일 최 충무 형제 집에서 성찬식과 기초 복음반 모임을 가졌다.

종전에 가졌던 전도서 형식의 모임과는 다른 이 모임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기 원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곳에 회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회원의 집이나 기타 가능한 장소에서 교회의 정규 모임을 간소화하여 성찬식과 기타 필요한 모임을 갖게 된다.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이



김포 집회소 회원과 선교사들

## 뉴욕시의 한국 성도들

하늘에는 별빛만이 고요하고 대부분이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기에 짧은 시간이라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뉴욕시의 한국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틈을 내서 간간이 고국의 산천을 보러 어려운 귀향길을 마련하는 이들을 보면, 누구나 외국에 오래 있을 수록 지난 날의 추억을 되살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가보다.

지난 1월 15일 뉴욕 지부의 이 낙연 지부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 지부장은 뉴욕시에 살고 있는 한국 지부 성도들의 최근 소식을 전해 주었다.

현재 평균 65명의 성도들이 활동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는 특히 음악을 전공하는 회원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 중 이 경은 자매는 줄리아드 음악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이 윤경 자매는 맨하탄 음악 대학원생이다.

고국을 떠나 바쁘게 생활하면서도, 신앙으로 결속된 뉴욕 지부의 성도들은 어렵지만 교회의 기본 조직을 모두 갖추고 지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7월에 구모라 언덕에서 열리는 야외극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만일 뉴욕을 여행할 기회가 있는 한국 성도들이 뉴욕 지부를 방문하면 강한 간증을 지닌 그곳 성도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을 것이라 한다.

비록 뉴욕 지부의 성도들과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지만 한 겨레로서 회복된 복음대로 생활하는 성도로서 그

유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한국 성도들은 신미년 새해에는 뉴욕 지부가 크게 발전하고 그곳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하고 있다.

현재 뉴욕 지부의 각 보조조직에서 부름받아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지부장 : 이 낙연 형제

제1보좌 : 박 관호 형제

제2보좌 : 김 정웅 형제

선교책임자 : 박 종배 형제

장로정원회 : 김 이태 형제

상호부조회장 : 이 강자 자매



\* 이 낙연 지부장  
연락처 : (718) 969-9619

# 선교사 훈련원 제 123 기

(1990. 12. 10~1990. 12. 21)

서울 선교부  
유 미숙 자매(충정 와드)

서울 서 선교부  
김 광희 자매(천안 지부)

대전 선교부  
이 규숙 자매(신길 와드)

부산 선교부  
구 창모 장로(천안 지부)  
강 성인 장로(금성 지부)  
김 승엽 장로(성남 중앙 지부)



뒷줄 왼쪽부터 구 창모, 강 성인, 김 승엽, 앞줄 이 규숙, 유 미숙, 김 광희

## 우리말 물몬경 100만부 출판

교회 공보 위원회(위원장 김종열 형제)는 서울 지역과 서울 서지역 공동 주최 및 공보 위원회 주관으로 3월중 “우리말 물몬경 100만부 출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 1월 20일 발표했다.

1967년부터 현재 모양의 완역 물몬경을 출판한 이래 1백만부의 판매를 달성하게 될 금년 3월중에 열릴 이 행사는 다가올 4월 27~28일의 서울 지역 및 서울 서지역 대회의 대회전 행사의 성격을 띠고도 있다. 공보 위원회는 이번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도들의 성장한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고 자존심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편집자 주 :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각 와드/지부를 통하여 발표될 것임.

## “물몬경을 통한 개종 이야기” 공모

한국 교육 기구와 함께 위의 모임을 후원하게 될 한국 관리 본부는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물몬경을 통한 개종 이야기 또는 간증을 아래와 같이 공모한다.

1. 내용 : 물몬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하게 된 경험이나 물몬경에 대한 간증
2. 길이 : 200자 원고지 12-13매. 제출자의 주소, 성명, 와드/지부를 반드시 기재할 것
3. 마감일자 : 1991년 3월 10일(일부인 유효)
4. 접수처 : 서울 성동 우체국사서함 22호, 우편번호 133-600  
성도의 빛-“물몬경을 통한 개종 이야기”담당자 앞
5. 시상 : (1) 1991년 3월 중에 있을 “우리말 물몬경 1백만부 출판 기념”행사(일자는 추후에 신권 지도자를 통하여 공고될 것임)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함.  
(2) 우수한 작품은 성도의 빛에 게재함  
(3) 우수한 작품은 교회본부의 신문사 또는 잡지사에 보낼 것임

기념 행사의 일부로 물몬경이나 성도의 빛에 관련된 전시회를 갖고자 하오니 물품이나 사진을 갖고 계신 분은 위의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면 전시 후에 본인에게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